

정부는 노정/경정협의체를 통해,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☐ 2.10.(화) 조선일보, “정부, 사측 빼고 ‘노정협의회’ 구성”

- ...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..
- ...그러나 이는 노정협의체를 만드는데 따른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... 실제 노정협의체 개설이 먼저 결정된 후 경총과의 협의체는 뒤따라 나온 논의...

2. 설명 내용

- ☐ 정부는 노정/경정협의체*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노사 모두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듣고 진솔히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함

* 노정/경정협의체 구조: 실무협의체(실무자급) - 운영협의체(부대표급) 2단계 구조
+ (필요시) 분과협의체

- 노동계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도 실무자급 경정협의체(1.22. 실무협의체)를 발족하여 주요 노동현안과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소통을 하고 있으며

- 2월 24일에는 경총-고용노동부 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도 예정하고 있음

- ☐ 앞으로 노동계·경영계와의 정책 소통 창구로서 노정/경정협의체를 정례화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부용 (044-202-7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대원 (044-202-7742)